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5

십자가에서의 전쟁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경: 골 2:15, 3:4, 갈 2:20

I. 골로새서 2장 15절에 계시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 A.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그 시점에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 준다.
 1.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2.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분주했다.
 3.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겼다는 말은 싸움을 함축한다. 그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5.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을 볼 수 없었지만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그것을 보았다.
 6. ‘벗기시어’라는 말은 사탄이 어떤 것도 불들거나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사탄의 악한 능력을 처리하셨다 — 히 2:14 하.
 8.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과 싸우셨고 죽음의 능력을 이기셨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 위로 올라가셨다.
 9.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 B.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대명사(영어 회복역) ‘그분’은 12절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들을 지워 버리셨다.
 2. 우리가 죄로 가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 하나님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곧 사탄의 부하들로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악한 천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4.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 a. 하나님께서는 죄와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다.
 - b.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로 몰려들었다.
 - c.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셨다.
 - (1)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다.
 - (2) 하나님의 일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고, 벗어 버리시는 것이었다.
 - d.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에 몰려들었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방해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 e. 그들이 밀착하여 압박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벗기실 수 있었겠는가?
 - f.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라는 말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분께 매우 밀착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 C. 이제 율법과 악한 천사들이 제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 곧 그분을 믿는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뚜렷한 근거와 평안한 환경을 갖게 되셨다.

1. 그분은 영원 과거에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즐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당한 분위기를 갖게 되셨다.
2.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고 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

II.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 골 3:4, 갈 2:20.

- A.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 골 3:4, 요 5:26.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도로 주관적이심을 의미한다 — 요 1: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롬 8:10, 6, 11.
 2.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한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6 상, 벨 1:21 상.
 3.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는 타고난 생명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a.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 갈 2:20.
 - b. 이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다 — 요 11:25.
 - c.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 골 3:3-4, 마 6:1-6, 16-18.
- B.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본다.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한다.
 2.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격, 새로운 '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3.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옛 '나'와 새 '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옛 '나'는 끝났고, 새 '나'가 산다.
 - a. 끝난 '나'는 신성이 없었던 '나'이다.
 - b. 여전히 살고 있는 '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신 '나'이다.
 - c. 옛 '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새 '나'는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 d. 옛 '나'는 새 '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옛 '나'에 더해지셨기 때문이다.
 - e. 새 '나'는 옛 '나'가 부활하여 옛 '나'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셨을 때 생겨났다.
 4. 우리와 그리스도는 두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다.
 - a.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신다 — 요 6:57.
 - b.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분께서 살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살지 않으시면 우리도 살 수 없다.
 5.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벨 3:6).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6.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보다 율법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활에서 중심과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